“경제 어렵지만, 위기를 호기로”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취임 100일 맞아

“전주상의 회장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소중하고,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가를 새삼 느끼게 해주었고,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시간이었습니다.”

30일 취임 100일을 맞은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의 소회다.

김 회장은 당선 공약으로 공업단지 및 산업단지 활성화 편의도모, 진성회원업체 확충,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 및 지식 공유, 정책 개발 자문기구 운영, 기업경영지원을 위한 자문단 위촉 운영, 분과별 모임 개선 및 보완 등 총 6가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공약사업 중 무엇보다도 지난 100일 동안은 진성회원 확충과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설립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 전기공사 업체 활성화 대책 촉구, 공유 국유재산 사용면적에 따른 임대료 책정 요청, 서남권 해상풍력사업 도내 업체 참여 활성화 촉구, 도내 시외버스업계 경영난 해소 지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4+3 초광역권 반영 촉구 등을 건의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상 애로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에도 민간차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인재 양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직업계 고등학교 지역인재 양성, 산학연계교육 등 취업역량 강화, 일자리 발굴 및 취업 매칭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지역 4개 상공회의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김정태 회장은 “이 업무협약을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는다. 사진은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전주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태 회장은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 해도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기 마련이고,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호기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우리 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 뿐만 아닌 도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공사 어린이집 원생 40여명을 초청해 ‘농초롱·어초롱’과 함께하는 어촌수산해양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어촌공,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

바다의 날 맞아… 어린이 우유갑 활용 친환경 배 만들기 등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중앙회는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공사 어린이집 원생 40여명을 초청해 ‘농초롱·어초롱과 함께하는 어촌수산해양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초롱·어초롱은 공사 대표 캐릭터로 ‘농초롱’은 영롱하게 빛나도록 농촌을 지킨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어초롱’은 영롱하게 빛나도록 어촌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에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바다 생태계의 심각성을 알리고, 바다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멸종위기 뱀장어의 일생 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으로 ‘바다에 쓰레기가 숨어있다고?’ 영상 강의, 친환경 종이배 만들기 체험 등 자원의 순환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룬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김자영 어촌수산처장은 “환경문제 해결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활동이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포스코이앤씨 공동주택 건설사업,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 기대

전북자치도 · 전건협 전북, 포스코이앤씨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소장과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는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의 대형건설현장(에코시티 16BL)에서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등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도는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건축사업과 에코시티 16블럭 공동주택건축사업의 현장소장 및 공사계약담당을 만나 아파트 건설현장에 지역건설업체 다수가 참여될 수 있도록,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60%이상 확대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지역업체 장비를 사용토록 요청했다.

전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자체기준을 만들어 지역업체의 입찰풀을 늘리고, 현장사무소 지역추천제를 2~3개으로 확대하고, 지역자재·장비 사용을 위해 하도급사에 적극사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는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의 대형건설현장(에코시티 16BL)에서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등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건축사업(1,334), 에코시티 16블럭 공동주택사업(576세대), 전주 기자촌 주택재개발사업(2,226세대), 군산 구암동 공동주택건축사업(704세대), 익산 중앙동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741세대) 등의 시공사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랜 경험과 뛰어난 시공능력을 갖춰 도내에서도 성공적인 분양 성과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사업에 있어서 포스코이앤씨의 지역기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전북자치도와 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가 지난 5월 9일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 도내 추진중인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 후속조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도는 도내 건설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도내 건설업체가 시공가능한 공정은 하도급 등 적극 공사에 활용하도록 요청했었고, 포스코이앤씨 본사관계자(사업단장)는 도내 건설현장에 지역업체가 적극 활용되도록 공사 현장과 협의해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북도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 배 농가 과수화상병 방제 현황 점검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와 함께 지난 28일 익산시 금마면 소재 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 현황 및 생육동향 등을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수 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와 같은 장미과 식물의 잎, 가지, 줄기 등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는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발병 시 과수원을 부분 또는 전체 폐원해야 한다.

전북농협은 지난 28일 익산시 금마면 소재 배 농가를 방문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 현황 등을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익산지역은 지난 2020년 발병 이후 현재까지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5.24. 현재 전국적으로 46농가(사과33, 배13)가 발생하였고 전북도 4농가(사과)가 발생하는 등 기상여건 상 6월 중순까지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협은 자체 교육 및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농가에 과원 및 작업자 방제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살균제 등 소독용품을 공급하여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냉해피해와 일조량부족으로 과수농업인이 어느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수화상병까지 발생돼 매우 안타깝다”며 “지자체·농업기술원과 긴밀히 협력해 농가에 예방수칙을 전파하고 추가확산 방지와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한국식품연구원,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2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한국식품연구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였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22~2023년 연속 2등급 달성이라는 업적을 이뤘으며, 이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5개 중 6개 기관만 해당된다.

안전관리등급제는 2020년부터 시행된 심사이며,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및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등 3대 범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또한 2023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평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해당되는 연구시설 심사에서는 최우수 평가인 A등급을 받아 실험실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인정받았다.

한국식품연구원 백형희 원장은 “정부시책을 준수하고 임직원 및 협력업체가 모두 참여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적극 이행한 결과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